

지역 소식통



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정철호 전주대학교 교수 위촉

정읍시가 정철호 전주대학교 교수를 20일 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정철호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북대학교에서 도시계획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가R&D 도시재생 연구 참여,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군산시 도시재생대학 책임연구원으로 활동 한 바 있다.

정읍시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6년 5월 2일부터 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센터의 조직 구성은 센터장과 팀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성기 정읍시장은 위촉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도시재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정읍시는 20일 오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김성기 정읍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도시재생전문가, 관계공무원, 용역수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관계자로 부터 중간보고회 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 답변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읍시의 최희자역진단, 원도상세 활용가능한 유·무형자원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현안사업, 도시잠재력 분석 활성화 우선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다.

향후 정읍시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정읍시의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기 정읍시장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참여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정읍시 다량의 재정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햇불을 촛불로, 정읍을 세계로”

정읍시,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준비 ‘박차’

햇불을 촛불로, 정읍을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제50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동학농민혁명군 최초 전승자인 정읍 황토현전전지 일원에서 열린다.

정읍시(시장 김성기)가 주최,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기념제는 “햇불을 촛불로, 정읍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제는 11일 사전행사인 황토현 전승 기념식과 동학농민혁명 전국화방안 모색 포럼을 시작으로 12일에는 기념식과 제7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여, 축하공연, 천명공연 등이 진행되며 14일까지 구민사 갑오선열 제례, 무명농민군 위령제, 가족과 함께하는 전국역사 퀴즈대회, 전국청소년 토론대회, 예술동화회공연과 정읍문화 예술인 한마당 등이 북설무대에서 펼쳐짐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정읍-부안

서남권순환관광버스 운영 토탈관광 활성화

지역별 관광명소 연계 수도권관광객 유치 ‘총력’

고창군이 정읍시, 부안군과 함께 전북 서남권 관광명소를 한 눈에 둘러 보고 체험하는 '서남권 순환관광버스' 운영에 힘을 모으며 전북관광의 해를 맞아 토탈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들 3개 시군은 올해 (주)이름여행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각 지역별 관광명소를 연계하여 더 많은 수도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부안읍 주민자치위, 자매결연도시 광주광역시 학운동 방문

부안군 부안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지난 19일 자매결연도시인 광주광역시 학운동을 방문해 우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해마다 상호 방문을 통해 남다른 우애를 다져온 양 지역은 프로그램 벤치마킹 및 문화교류로 상생발전도



김 시장은 50주년을 맞는 이번 동학 기념제는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있다며,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학정신을 더 한층 계승·발전시켜 나간다고 밝히고 기념제를 통하여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동학농민혁명정신 위상 정립도 탄력을 받을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진 이사장은 “행사기간 동안 동학농민혁명 주제 특별 기획전시, 예술행사, 체험마당, 음연등의 향토음식 먹거리 등으로 50회 기념제 행사는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행사로 만들겠다”며 “이번 기념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읍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회를 운영하면서 서남권에 1만8000여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남권 시터투어버스는 오는 22일부터 올 11월까지 단일 코스는 100회, 1박2일 코스는 50여회 운행하고 지역의 축제 기간에는 매일 출발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서남권 시터투어버스는 서울에서 출발해 고창청보리밭 축제, 선운산, 고인돌유적지, 부안바실축제, 정읍내장산, 김명관고택,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등 코스에 따라 운행된다.

/고창=김영식기자

로써 자매결연의 돈독함을 더했다. 부안읍 주민자치위원들은 “지난 2008년 자매결연 이후 활발히 교류한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 추진을 통해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장애인의 날 기념 화합의 장 마련

고창군, 어울림 한마당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고창군지회(지회장 신육) 주관으로 고창태극무대에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자립의식을 높이고 다름의 동행,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울림 한마당으로 구성됐다.

가야금 색소폰 연주 등 참석자와 함께하는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에서는 장애인권리장 낭독에 이어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

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길수 고창군 부군수는 “고창군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이끌고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38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복지관이 7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장애인들의 문화공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육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고창군지회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모두가 당당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기념행사 진행

부안군장애인연합회(회장 박일환)가 주관한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20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한 김중회 국회의원, 박천호 부안군의회 부의장 등 각 기관단체장과 장애인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념행사는 부안장애인복지관의 흥겨운 풍물놀이로 시작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향상에 기여한 군민과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 장애인연합회 공로패·감사패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추진

정읍시가 2017년 국토부에서 주관한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100여원을 들여 1~2층에는 실버복지관, 3층 이상에는 공공실버주택 80세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은 전액 국비로 건립되는 사업으로서, 정읍시에서 공공실버주택 건립부지로 최종 확정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정읍시는 이번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도심지역 노인들에게 큰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읍시 관계자는 “공공실버주택 건립부지를 결정하기 위해 노인복지시

설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심지역으로서 교통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인 정읍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부지로 최종 선정하였다”며, “기존 공영주차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더할 수 있는 터미널 인근 부지로 대체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성기 정읍시장은 “이번 공공실버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위탁 없이 시가 자체적으로 주도해 추진하는 만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백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cartoon bear mascot and several bottles of win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